

물·환경 그리고 사람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기업, 워터제네시스

기사입력 : 2023.05.24 15:26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10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하여 4분기 11월 24일에는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컵과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적용 대상이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전면 사용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텀블러(개인컵) 같은 다회용기의 자발적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매달 10일을 1회용 컵 없는 ‘텀블러(개인컵)데이’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환경부에서는 워터제네시스가 개발한 개인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클린 지니(KLEAN GENIE)’를 설치해 개인 보유 컵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내벤처 1기
클린 지니, 2021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
고농도 차아염소산(HOCl) 전해수기 살균 99.99%**

워터제네시스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내벤처 1기로 출발, 수공의 든든한 지원 하에 2019년 11월에 연구소기업으로 창업했다. 이세현 대표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발전하는 양상 속에서 사람들이 개인용품을 소지하고 청결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보다 위생적이고 편리한 세척 방식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30년 이상 쌓아온 경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힘써온 워터제네시스의 이세현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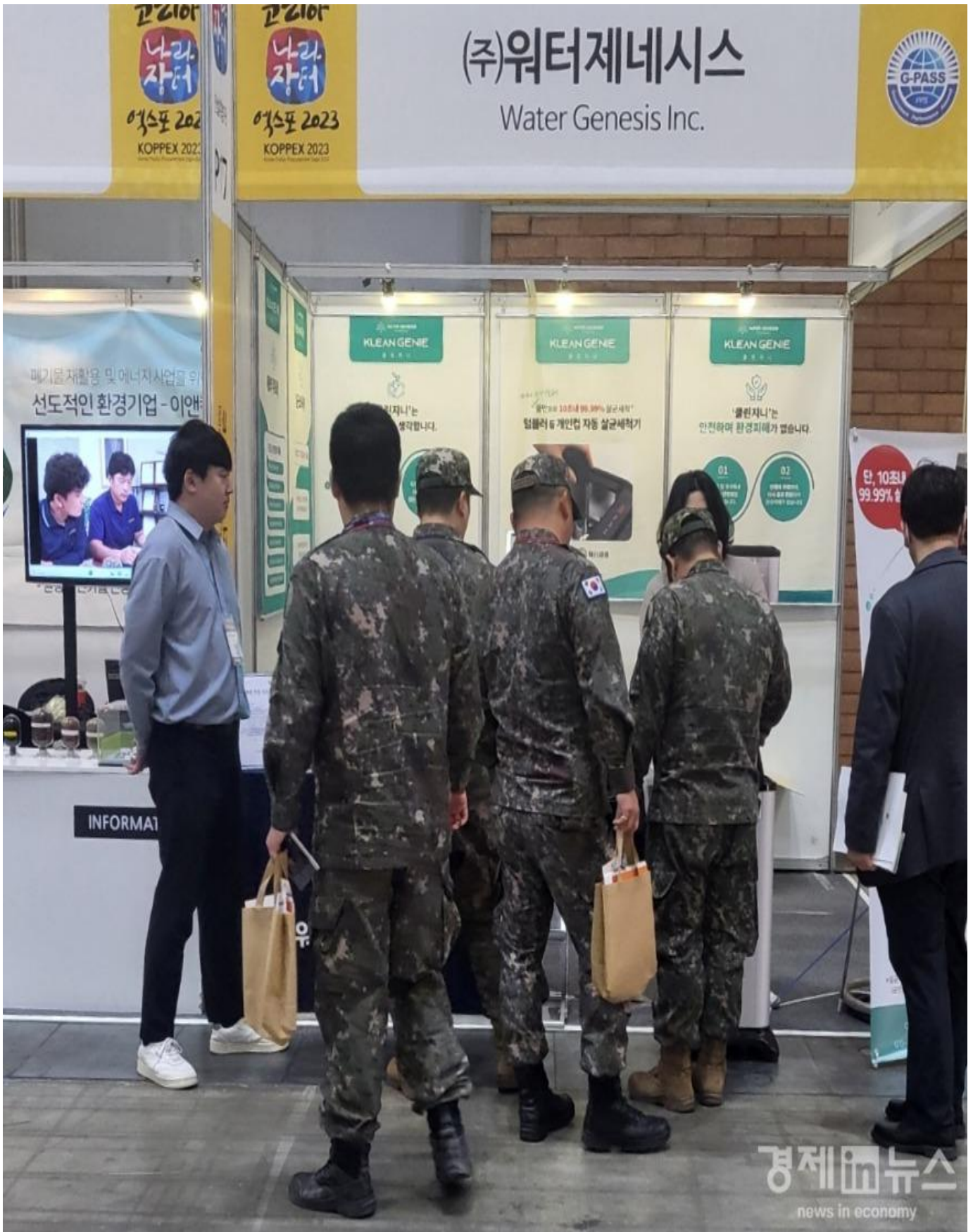


워터제네시스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워터제네시스는 물의 가치를 창조하고 환경 중심의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환경친화기업이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며 다양한 기술 및 제품을 연구개발(R&D)·제조에 힘쓰고 있다. 클린지니(KLEAN GENIE)는 이러한 신념과 기술력의 집합체로서 첨가물 없이 물로만 99.99% 살균 소독이 가능한 자동 살균 세척기이다. 전세계적으로 환경보호 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개개인으로는 1회용품 줄이기·텀블러 사용 같은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이 장려되면서 합성 세제 성분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워터제네시스는 이러한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여 유해물질 배출 문제에서 자유로운 클린지니를 개발했다.

주력 상품인 클린지니(KLEAN GENIE)에 대해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클린지니는 DSE 전기분해 전극을 이용한 살균수 생성 기술과 이류체 펄스파 생성기술을 적용했다. 물속에 미량 존재하는 염소이온(Cl)을 실시간 전기분해(전기화학적 반응)를 통해 살균력이 강한 차아염소산(HOCl)을 생성, 물과 공기의 이류체를 혼합 유입시켜 30회/1초의 파동으로 세척력을 3배 강화했다. 물 소비 또한 최소화로 낮췄다. 360도 다면체 노즐은 컵의 안쪽과 컵 바깥쪽의 입이 닿는 부분까지 동시 살균세척 되어 2차 오염의 사각지대가 없다는 점 또한 강점이다. 사용의 안정성과 살균효과의 입증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검사를 끝마쳤다. 클린지니는 이와 같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1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일반 기업, 다중시설 등에 2,000여대 설치 운영 중이다.



향후 목표는 무엇인지

워터제네시스의 클린지니는 설립 후 3년만에 27억의 매출을 달성하며 유망성을 인정받았다. 2022년 6월에는 조달시장 G-PASS 기업으로 지정되어 해외시장 판로도 구축 준비 중이다. 워터제네시스는 물의 가치 창조·환경가치 구현·사회가치 실현을 미션으로 삼고 선두에 서서 실현하는 기업이 되겠다.

[최지민 기자 cjimin@newseconomy.kr]

<저작권자©경제인뉴스(경제in뉴스) & www.newseconomy.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